

#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강 혜 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 1. 개요

OECD는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원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WTO 관련 통상정책, 국내정책, 새로운 이슈 등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정책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며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OECD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농업정책 수립 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또한 선진국들이나 세계 농업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예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논의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OECD 농업위원회는 시장개방화와 연계된 PSE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논의에 집중한 반면, 영세농의 문제와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소홀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4년 5월에 개최된 OECD의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에서 대농과 영세농의 공존 상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농업의 이원성과 식품쓰레기 감량에 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식품쓰레기 개념 및 감량 효과에 관한 내용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 (hjkang@chonnam.ac.kr).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업의 이원성은 올해 처음으로 독립의제로 논의되었다. 농업발전론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농업의 이중구조를 설명하고 사례국가 분석을 병행할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완성된 보고서는 2014년 11월 APM에서 발표될 것이다.

2014년 5월에 OECD APM에서 논의되었던 의제 중 농업의 이원성과 식품쓰레기 감량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014년 상반기 OECD의 농업의제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2. 농업의 이원성(Agricultural Dualism)

### 2.1. 개념 정립 및 분석의 필요성

농업의 이원성(agricultural dualism)은 다수의 영세농(small-scale farms)과 소수의 대농(large-scale farms)의 공존을 의미한다. 농업의 이원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다수의 영세농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OECD는 개발도상국의 영세농이 상업적 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요 요인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의 지원효과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영세농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의제의 목적은 1) 영세농의 시장 접근의 한계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2) 관련 농업정책의 지원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세농의 시장 접근의 한계 및 제약요인은 경제발전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며, 관련 농업정책 지원 효과는 국가사례 조사(예를 들어,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및 PS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 2.2.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2.1. 농업의 이원성

이원성 이론(dualism theory)은 1950년대 Lewis(1954)의 이중구조모형(dual sector development model)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국가는 전통적 농업부문과 현대적 산업부문 모두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 농업부문은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낮은 자본, 낮은 취업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산업부문은 기술적 발전과 높은 투자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많은 농촌인력이 현대적 산업부문으로 유출되고 있다.

**루이스의 이중구조 모형(Lewis model, dual sector development model)**

한 나라의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전통부문인 농업과 근대화부문인 비농업이 이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공존한다. 비농업은 자본주의적 산업이고 화폐화 된 산업으로서 이윤이 생산 활동의 목적인 반면, 농업은 전자본주의적이고 생산의 목적은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유지에 있으며 많은 잠재실업을 내재하고 있다.

루이스의 모형은 이러한 이질적인 두 부문이 공존하면서 농업부문의 잠재실업이 근대화부문에서의 이윤추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는 노동자의 숫자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과 같다면, 한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잉여노동력이 이동하는 만큼, 농업부문 총생산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반면에 노동력 증가에 의해 제조업부문의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제조업부문의 한계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자본재 축적에 의한 투자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부문의 한계 노동 생산과 제조업부문의 한계 노동생산이 같아지고 양 부문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게 될 때까지 노동력의 이동이 이루어져서 균형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Lewis Model의 귀결이다.

루이스의 이중구조모형으로 농업의 이원성을 설명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는 영세규모의 높은 노동집약적(낮은 자본집약도)인 전통적 생계농업부문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집약적이며 높은 노동분화적 생산체계를 갖춘 현대적 농업부문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전통농업과 선진농업간의 차이는 사용하는 투입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의해 발생함. 전통적 농업을 행하는 영세농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상업적 농업은 신기술 도입이 빠르고 투입재 집약도가 높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선진농업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영세농은 주로 천수답 전통적 영농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다(Dwivedi and Chaudhuri, 2009). 따라서 향후 OECD APM회의서 개발도상국 사례를 통해 농업의 이중구조 현황을 검토하고, 영세농을 위한 농업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2.2.2. 세계적인 영세농 추세

영세농(small-scale farmers)의 개념은 농가수입, 사회경제적 특성, 경지규모, 지역, 국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세농은 경지규모에 의해 정의된다.

Proctor and Licchesi(2010)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 14개국의 통계자료에서 경지면적이 2ha 이하인 농가는 3억4천8백 농가에 달한다. Anriquea and Bonomi(2007)의 1970~2002년 기간 동안의 17개 국가의 농업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경지면적은 증가 추세이나,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10농가 중 9농가는 2ha이하의 영세농이며, 이들 농가는 주로 주곡생산을 하고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농규모(farm size)는 지역 및 국가마다 다르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세농이 계속 존재해 왔으며, 중단기적으로 그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14개 국가의 경지면적 2ha 이하인 농가 수 분포

국가	경지면적 2ha 이하 농가 수	2ha 이하 농가 비중(%)
중국	189,394,000	98
인도	98,077,000	82
인도네시아	22,067,048	89
에티오피아	9,374,455	87
베트남	9,690,506	95
파키스탄	3,814,798	58
태국	2,120,062	37
필리핀	3,330,777	68
브라질	983,330	20
이집트	4,353,053	96
모잠비크	2,556,589	83
콜롬비아	831,269	41
모로코	762,033	53
세네갈	163,758	37

자료: Proctor and Licchesi(2010), "Small-scale farming and youth in an era of rapid rural change," Knowledge Programme Small Producer Agency in the Globalised Market, IED and Hivos.

표 2 지역별 평균 영농규모

지역	평균 규모(ha)	2ha이하 비중	지니계수
중앙아메리카	10.7	63	0.75
남아메리카	111.7	36	0.9
동아시아	1	79	0.5
남아시아	1.4	78	0.54
동남아시아	1.8	57	0.6
서아시아/북아프리카	4.9	65	0.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	69	0.49
유럽	32.3	30	0.6
미국	178.4	4	0.78
캐나다	273.4	6.8	
호주	3601		
뉴질랜드	222	6.8	

자료: Eastwood, et. al.(2010) based on FAO estimations.

### 2.3. 양우 논의사항

농업정책이 영세농 발전(예를 들면, 시장접근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세농이 직면한 제약요인과 사례국가의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가능한 사례국가는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그리고 멕시코 등이다.

상업적 구조에서 영세농의 주요 제약요인을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사례국가의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정책 분석을 위해 PSE/GSSE 데이터베이스의 농업정책을 주로 검토하고, 농지제도, 노동규정, 그리고 영세농과 관련 있는 비농업정책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국가에서 영세농의 정책수요를 조사 및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분석을 통해 영세농의 시장 접근 제약요인과 농업정책은 이러한 제약요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도출할 것이다. 정책 수요 조사표의 제약요인 항목은 1) 자본 부족, 2) 기술 부족, 3) 기술지원, 교육 훈련 부족, 4) 농업위험관리수단 부족, 5) 투입재 접근 한계, 6) 시장정보 부족, 7) 농외소득 기반 미흡, 8) 영농인프라 미흡, 9) 농지권리 제약, 10) 농지제도 제약, 11) 낮은 소득, 12)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 PSE/GSSE 정책 유형, 수혜자(대농/영세농), 목적(경제적, 사회적), 실행상 문제점, 농업구조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3. 식품쓰레기 연앙 및 관련 정책 사례 연구

이 의제는 일본과 영국의 식품손실 및 쓰레기 발생 현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와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sup>1)</sup>, 일본의 농림수산업성(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이 수행하였다.

#### 3.1. 일본

일본은 식품소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식품체인별 발생하는 식품손실 및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 재활용법(Food Recycling Law)하에 2000년 이후 식품손실 및 쓰레기를 억제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 보고서는 일본의 식품손실 및 쓰레기 감량 정책의 목표, 측정, 성과 그리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식품체인단계별 산업군별 식품쓰레기 감량 목표

산업군	산업 소분류	지표	목표량	단위
제조업	육가공업	판매량	113	kg/million JPN
	낙농가공업	판매량	108	kg/million JPN
	콩 소스	판매량	895	kg/million JPN
	장류	판매량	191	kg/million JPN
	소스	생산량	59.8	kg/t
	빵류	판매량	194	kg/million JPN
	국수	판매량	270	kg/million JPN
	두부	판매량	2560	kg/million JPN
	냉동식품	판매량	363	kg/million JPN
	즉석식품	판매량	403	kg/million JPN
	스시, 도시락 제품	판매량	224	kg/million JPN
도매	음료수	판매량	14.8	kg/million JPN
	음료수 제외 식품	판매량	5	kg/million JPN
소매	식품	판매량	65.6	kg/million JPN
	제빵 및 제과류	판매량	106	kg/million JPN
	편의점	판매량	44.1	kg/million JPN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2012.

1) WRAP(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은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으로, 쓰레기 및 자원처리 전문기관

식품쓰레기 관련 데이터는 식품제조업, 도매, 소매, 외식업체 등에서 수집되었다. 연간 100톤이 상의 식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업체는 식품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본의 식품쓰레기 관련 통계자료는 사료 또는 비료 사용에 재활용되는 쓰레기 추정량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식품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보다 식품쓰레기 감량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술적 조사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2년마다 16개 산업군의 식품쓰레기 감량에 대한 잠정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참조 생성단위 지표는 식품쓰레기 감량 목표 설정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이 지표는 판매량, 생산량 대비 식품쓰레기양으로 측정된다.

2009년 일본의 1인당 일일 식품 섭취량과 쓰레기양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상품군에 비해 과일(8.9%), 채소(8.7%), 수산물(6.0%) 등의 순으로 쓰레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식품 손실률은 3.7%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비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양은 다른 산업화된 지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

표 4 다른 지역과 일본의 소비단계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양 비교

구 분	단위: %			
	유럽(러시아 포함)	북미와 오세아니아	산업화된 아시아	일본 설문조사 결과
곡류	25	27	20	1
서류	17	30	10	-
두류	4	4	4	-
과채류	19	28	15	9
수산물	11	33	8	6
낙농품	7	15	5	1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9.

반품상품과 초과 재고에 의한 식품쓰레기는 개인 사업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전체 식품체인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은 식품쓰레기 감량 활동을 조사하고 인도마감일, 최적 유통기한, 표시방법 등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의 유효 기간의 연장이 재해 대비 국내 비축을 향상시킨다는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책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폐기물 발생 현황과 식품 산업에서의 식품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가단위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비단계에서 식품쓰레기양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 3.2. 영국

몇 년 동안 식품쓰레기 방지는 영국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목표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식품 쓰레기 방지책, 영국의 식품 쓰레기 개념, 부문별 식품쓰레기 유형 및 쓰레기양을 보여주고, 정책과 그 영향을 검토한다.

2000년에 영국과 웨일스의 가정, 상업, 산업부문은 연간 1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이 쓰레기의 85%가 매립되었다.

평균 퇴비화와 재활용률은 9%에 지나지 않았다. 그해 영국과 웨일스 정부는 영국과 웨일스의 쓰레기 전략 2000 을 공표하여, 퇴비화 및 재활용률을 3배까지 증가시키고 2015년까지 매립되는 상업 및 산업 쓰레기의 85% 감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당시 가정용 쓰레기는 연간 3% 증가하고 있어 영국은 식품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행하여, 2007년 이후 식품쓰레기는 15%까지 감소하였다.

#### 3.2.1. 가정용 식품쓰레기

2013년의 WRAP 조사에 의하면, 가정, 호텔, 외식업, 식품제조업, 도소매부문 등에서 발생한 연간 식품 쓰레기양은 1억 2천만 톤이며, 이중 75%는 피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었다. 이는 연간 GBP 190억의 가치이며, 온실 가스 배출량 20만 톤과 관련되어 있다. 피할 수 있는 식품쓰레기양의 90%는 가정과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3 영국의 부문별 식품쓰레기양 분포

단위: Mt



주: 총량은 1,500만 톤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2013.

영국에서 음식료품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피할 수 있는(또는 줄일 수 있는) 음식료품 쓰레기는 신선채소 및 샐러드(19%), 음료수(17%), 베이커리(11%), 가정식 및 반조리식품(10%), 낙농품 및 계란(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기준으로는 육류 및 수산물(17%), 가정식 및 반조리식품(17%), 신선채소 및 샐러드(14%), 음료수(10%), 신선과일(7%) 등의 순이다.

식품군별로 식품쓰레기(또는 폐기)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폐기 원인의 대부분은 제시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채소, 샐러드, 베이커리, 낙농품과 계란 등에서 이런 원인에 의해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 한편, 음료수와 육류 식품쓰레기의 상당량은 너무 많이 조리하고 준비해서 남은 음식에 의해 발생한다.

### 3.2.2. 호텔과 외식업체의 식품쓰레기

호텔 및 외식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식품쓰레기는 식당, 술집, 교육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용 기준으로는 식당, 술집, 호텔 등의 순으로 높다. 호텔 및 외식업체의 식품쓰레기 종류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쓰레기의 40%가 탄수화물 식품으로, 감자 및 감자식품(21%), 빵 및 베이커리(12%), 파스타 및 쌀(7%) 등으로 나타났다.

식사유형별 식품쓰레기 분포를 살펴보면, 가벼운 식사, 고급식사 등의 순으로 식품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단계별로는 준비 및 손질단계에서 평균 45%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다음이 남은 음식, 부패 및 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호텔 및 외식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식품쓰레기양 및 비용

구분	식품서비스 제공업체 수	식품쓰레기양	식품쓰레기비용*
식당	40,958	199	3,500
술집	45,087	173	2,100
교육산업	34,744	123	2,100
의료산업	19,257	121	1,900
호텔	45,763	79	4,000
즉석서비스 식당	31,450	76	3,500
서비스업	2,029	68	1,700
레저산업	9,255	60	4,000
단체급식업	7,172	21	2,200

주: 2011년 비용 추정치.  
 자료: 영국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표 6 식 사유형별 발생하는 식품쓰레기 분포

식품쓰레기 발생점	기본 식사	가벼운 식사	고급 식사	계약 음식준비	평균
부패 및 손상(%)	22%	21%	16%	26%	21%
준비 및 손질(%)	32%	50%	61%	38%	45%
잔식량 (%)	46%	29%	23%	36%	34%
쓰레기양 (kg)	0.17	0.38	0.31	0.15	0.22

자료: 영국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2013.

### 3.2.3. 관련 제도 및 정책

영국에서는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코틀드 협약(Courtauld Commitment) 과 호텔 및 식품서비스업 협약(HaFSA), WRAP에 의해 관리되는 자발적 협정 등이 있다. 상품 포장과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31개가 넘는 기업들이 코틀드 협약(Courtauld Commitment) 과 폐기물자원 실천 프로그램(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 WRAP)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에 소개된 이 협약에는 이수다, 막스앤스펜서, 테스코, 세인즈베리 등의 유통업체와 하인즈, 유니레버, 코카콜라, 네슬레 등의 제조업체들이 포함되며, 영국 식료품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WRAP는 모든 PET 포장의 무게를 8~10% 줄일 것을 장려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간 20,000 톤의 PET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OECD 농업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국제기구 논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논리 구축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내부의 소득불평등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영세농이 직면한 제약요인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최근 OECD의 농업이원성 의제는 우리나라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사례국가의 영세농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정책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영세농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농업부문에서도 농업내부의 소득불평등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의 이중성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례국가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선정하여, 경제발전애 따른 영세농의 제약요인과

관련 지원정책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의 외연이 식품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농식품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자급률 확보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식품쓰레기 관련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에서도 2013년부터 관련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올해 5월 OECD APM회의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식품쓰레기 발생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식품쓰레기 관련 통계 및 특별 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일본 및 영국처럼 식품체인 단계별 식품쓰레기 관련 통계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식품쓰레기 감량 목표 및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과 식품쓰레기 관련 특정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정, 2014,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세계농업 2014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nríquez, G. and G. Bonomi, 2007, Long-term farming trends: An inquiry using agricultural censuses, ESA Working Paper No. 07/20, Agricultural Development Economics Division, FAO.
- Dwibedi, J. and S. Chaudhuri, 2009, Agricultural dualism, incidence of child labour and subsidy policies, MPRA Paper No. 18002.
- Eastwood, R., M. Lipton and A. Newell, 2010, Farm size, Handb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4, pp. 3323 - 3397, eds. P.L. Pingali and R.E. Evenson, North Holland: Elsevier.
- OECD, 2012, Agricultural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4. Strategies for Addressing Agricultural Dualism and Facilit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Scoping Paper. TAD/CA/APM/WP(2014)12.
- OECD, 2014.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Progress Report. TAD/CA/APM/WP(2014)18.
- OECD, 2014.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Case Studies. TAD/CA/APM/WP(2014)25.
- Proctor and Lucchesi, 2010, Small-scale farming and youth in an era of rapid rural change, Knowledge Programme Small Producer Agency in the Globalised Market, IIED and Hivos.